

타이어 磨耗限界 1.6mm로 !

1. 타이어 磨耗限界를 1.6mm로 정한 背景

교통부에서는 최근 自動車保有臺數의 急増과 走行速度의 高速化에 따라 自動車로 인한 安全事故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自動車安全基準에 관한 規則」을 개정하였으며, 이 개정내용중 過磨耗 타이어 사용시 타이어의 미끄러짐과 破裂로 인한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타이어 磨耗限界를 1.6mm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였다.

2. 關聯規定內容

自動車安全基準에 관한 規則 제11조(走行裝置) 제1항 제2호(交通部令 제916호, 1989년 12월 23일 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現 行	改 正
공기압 고무타이어는 均열이 생기거나 코오드층이 노출될 정도로 마모되어서는 아니된다.	공기압 고무타이어는 均열이 생기거나 코오드층이 노출될 정도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요철형 무늬의 깊이를 1.6밀리미터 이상 유지할 것

3. 施行日字

1990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4. 規制條項 및 內容

(1) 自動車管理法 제29조 제1항(自動車の 構造 및 裝置)에 의거 安全基準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하며,

(2) 同法 제41조(自動車檢査) 제1항 제2호에 의한 자동차 계속검사시 同法 施行規則 제100조 제4항에 의거 불합격 조치되며,

(3) 同法 제29조 제1항의 安全基準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同法 제72조 제2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5. 타이어 磨耗限界 表示內容

타이어의 磨耗限界는 타이어 옆면의 “△”의 꼭지점이 지시하는 트레드(接地面) 홈속에 1.6mm 높이로 불록하게 표시되어 있다.

6. 磨耗限界 1.6mm 이하인 타이어 사용시의 問題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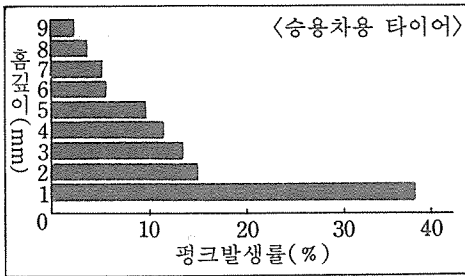
(1) 펑크 발생률이 30% 이상 높아진다.

(2) 制動距離도 30% 이상 길어진다.

(3) 빗길에서 물을 헤쳐내는 기능이 떨어짐으로써 水膜現象이 발생하여 잘 미끄러지며, 브레이크 및 핸들이 말을 듣지 않고 牽引力도 없어진다.



(그림 1) 타이어 마모한계



(그림 2) 홈깊이와 핑크 발생률

승용차용 타이어(80km/hr.)

신 품	43m
1.6mm 이하	57m

JATMA 자료

(그림 3) 홈깊이와 제동거리 비교(젖은 노면)

※ 하이드로 플래닝(水膜) 현상이란 ?

자동차가 빗물이나 물이 고여 있는 도로 위를 달릴 때 노면의 빗물이나 물은 타이어의 옆이나 앞쪽의 빈 공간으로 유출하게 된다. 그러나, 타이어가 高速回轉하게 되면 극히 짧은 시간에 충분히 물이 빠지지 못하고 남아 있는 물이 있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이 심해지면 타이어와 지면 사이에 水膜이 형성되면서 접촉을 저해하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하이드로 플래닝 현상’이라 하며, 이 현상이 발생하면 브레이크 및 핸들이 말을 듣지 않고 견인력이 없어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모한계 이하인 타이어는 사용해서는 안된다.